

어떤 주제의 책인가요?	소속을 선택하세요.	도서관명을 알려주세요.	이름을 알려주세요	추천하시는 책의 제목은? 추천 책의 출판사는 어디? 추천 책의 저자는 누구인가? 책의 한 줄이나 감상평을 적어주세요.								
9월의 주제 <지금 당신이	강원지부	뒤두르도서관	강영일	먹 맞는 돌을 찾으면	피카주니어	메리 린 레이	그중애 가장 중요한 돌은 아마도 너의 손에 꼭 맞는 먹 좋은 돌일거야					
9월의 주제 <지금 당신이	강원지부	뒤두르도서관	봉남	한여름의 빛	노는 날	모르간 블랙	한여름의 빛을 보며 지난여름의 소중한 기억들을 떠올릴 수 있는 아름다운 그림책입니다.					
9월의 주제 <지금 당신이	강원지부	뒤두르어린이도서관	김효심	시계탕	웅진 주니어	권정민	그날 아침 엄마는 시계로 변해 있었다.					
9월의 주제 <지금 당신이	경기남부지부	애기통돌도서관	한은희	코끼리 아저씨와 100개의	문학동네	노인경	가족들에게 주기 위해 아빠 코끼리가 돌아가는 파란색 물방울의 색이 너무나 시원해서 물방울 따라가며 왔다보면, 아~소리가 쏴로 납니다. 가족들이 못 보는 곳에서 애쓰는 아빠들의 애환이 웃음과 감사함으로 느껴집니다.					
9월의 주제 <지금 당신이	경기북부지부	동양아파트 작은도서관	최정화	불행이 나면 피해갈 리 없	atnoonbooks	정미진	그래. 행로도 나만 피해갈 리 없지.					
9월의 주제 <지금 당신이	경기북부지부	별광 작은도서관	박용자	우리집 할머니와	천 개의 바람	하정산	알고 보니 할머니 댁도 알을 낳을 수 있대. 다만 조금 천천히 낳을 뿐이래.					
9월의 주제 <지금 당신이	경기북부지부	작은도서관 웃는고래	여은주	작은 눈덩이의 꿈	시공주니어	이재경	"힘들게 구르자말고 다른 눈덩이 몸매 붙여 살까?" "그러면 내가 원하는대로 구를 수가 없잖아"					
9월의 주제 <지금 당신이	경기북부지부	있는 느티나무 온가족도서	이승희	작은 배추	길벗어린이	구도 나오코	둘레가 텅 비었습니다.					
9월의 주제 <지금 당신이	경기북부지부	지적질 늑대	석보경	지적질 늑대	엘로스톤	이상미 글 조정희 그림	괜찮아라는 말이 참 따뜻했어요. '괜찮아'라는 말이 참 아름답게 들렸어요. 늑대는 '괜찮아'라는 말이 좋았어요. '괜찮아'라는 말을 작은 목소리로 말해 보았어요.					
9월의 주제 <지금 당신이	경기북부지부	하늘멋작은도서관	정희경	시계탕	웅진 주니어	권정민	엄마는 가끔 고장이 납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사실을 모르죠 그땐 나사를 몇개 풀어야 합니다.					
9월의 주제 <지금 당신이	인천지부	꿈나래어린이도서관	안은경	다시 그곳에	JET재능교육	나탈리아 체르니셰바	어른을 위한 그림책이라고 생각한다. 힘들 때 어린 시절 그리운 그곳으로 달려가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든다..					
9월의 주제 <지금 당신이	인천지부	충추는달팽이도서관	최선미	은혜아, 살자	에메이징 아웃사이더 아트	장차현실, 홍승희	정은혜 작가의 출생에서부터 유년기를 거쳐 학령기, 청소년기를 지나 현재의 시간을 여머니인 장차현실님의 스토리텔링과 홍승희 편집북 작가의 손으로 꾸며 낸 그야말로 에메이징한 팝업 그림책입니다. 책장을 덮으면서는 <은혜아, 살자>라고 쓰고 <은혜아, 살아줘서 고마워>, <장차현실님 감사합니다.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라고 읽게 되네요					
9월의 주제 <지금 당신이	인천지부	콩세알도서관	노윤주	별을 사랑한 두더지	봄봄	브리타 테렌트럼	별은 우리 모두의 것이야'					
9월의 주제 <지금 당신이	인천지부	협회	김경숙	별일 없는 수요일	샘터	곽윤숙	별별 일이 다 일어나는 세상에서 별일 없이 무사히 사는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생각해본다. 축 별일이 있더라도 그 일을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별일이 아닐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단단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말이다.					
9월의 주제 <지금 당신이	충청지부	기마을10단지 푸른작은도서관	윤나영	태양을 꺼버린 소년	미세기	폴 브라운	8월 한달 너무 더워서 태양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그림책 주인공은 녹는 아이스크림 때문에 태양을 꺼버립니다. 재치 있고 귀여운 내용으로 자연스럽게 태양이 있어야 할 이유를 알게되는 책 입니다. 재미 있어요					
주제와 상관없이 현재 읽고	경기북부지부	고양작은도서관	김나현	불량 판결문	블랙피어	최정규	판사는 한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만한 판결을 선고할 권한을 국민에게 위임받았다. 그렇다면 그 권한을 행사할 때 더 엄격해야 하고, 실수를 했을 경우 더 철저하게 책임자가 한다.					
주제와 상관없이 현재 읽고	서울동부지부	슈랄라움작은도서관	정정애	우연은 비개 가지 않는다.	다산책방	줄리언 반스	2장 읽는중, 글방 글방 넘어가지지 않는다. 오래전 데미안을 읽었을 때의 느낌이 난다.					
주제와 상관없이 현재 읽고	울산경주지부	하랑작은도서관	배수경	도시의 마음	다산책스	김승수	도시속의 사람, 공간, 행복한 삶, 여유, 정력이 이 모든것들을 결정할수 있다.					
주제와 상관없이 현재 읽고	인천지부	늘푸른어린이도서관	김현정	제주도우다	창비	한기영	제주도의 일제시대부터 4.3사건까지 생활과 제주의 문화 및 침든고 아팠던 역사를 알 수 있는 소설이지만 역사서 같은 책이다.					
주제와 상관없이 현재 읽고	인천지부	쌍둥이어린이도서관	임수빈	날 좀 그냥 내버려 둬!	미래엔아이세움	베라 브로스쿨	몇 년 전에 일과 육아 집안일에 치이던 중 우연히 보고 반한 그림책 나의 상황에 맞아서 더욱 좋았던것 같다					
주제와 상관없이 현재 읽고	충청지부	푸른작은도서관	오유미	엄청나게 시끄럽고 믿을	민음사	조너선 사프란 포어	갑자기 떠나간 사람들에게 대한 그리움과 슬픔. 그리고 그 슬픔을 대하는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이 마음을 먹먹하게 하는 책.					